

광주 벤처 인프라 미약... '창업 최악도시'

신생기업 10개 중 6개 이상 3년 못 버텨 생존률 최하위 일자리 창출 역효과 우려... 자영업 폐업률도 전국 최고

광주가 '창업 최악의 도시'로 치닫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신생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기업이 없어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먹고 살려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창업환경에 일자리창출의 역효과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 생존률 최악-벤처인프라도 미약=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생명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창업한 뒤 3년 이상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사업을 시작하고 고작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 10개 중 4개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3년 평균 생존율인 4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4년과 5년 생존율을 보면 더 막막하다. 광주지역 신생기업의 4년 생존율은 30.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5년 생존율 역시 25.2%로 '전국 꼴찌'였다. 쉽게 말해 광주에서 창업할 경우 4개 중 1개 기업이 5년 안에 망한다는 뜻이다.

광주지역 신생기업 생존율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생명 행정통계' 자료에서도 광주의 5년 생존율은 23.9%에 불과했다. 1~5년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나 '잘 나가는' 지역 기업이 부족한 데다, 신생기업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광주지역 일자리부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할 모델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살아남는 기업이 없어 자영업에 내몰리는 '생계형 창업자'가

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폐업을 역시 광주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성업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영업자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했다.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모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다.

광주가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률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 '창업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벤처기업 인프라=이처럼 광주가 '신생기업의 무덤'으로 전락한 이유로는 열악한 벤처기업 인프라와 투자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3만6485개사 중 호남권은 2412

개(6.6%)에 불과해 수도권 2만1321개사(58.4%)와 영남권 8020개사(22%), 충청권 3860개사(10.6%)보다 규모가 현저히 적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이른바 '벤처 전역기업' 역시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513개사 중 수도권이 304개사(59.2%)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영남권 106개사(20.7%), 충청권 80개사(15.6%)로, 호남권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0개사(3.9%) 수준이었다.

초창기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성공을 뒷받침할 신규벤처투자 금액규모도 전체 2조1895억원 중 광주는 불과 0.6% 수준인 142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4번째였다. 신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낮은 탓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문에 광주지역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기업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광주지역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도시가스 상급 기탁 해양도시가스 김형순 대표(왼쪽부터 네번째)는 최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방문, 한국화학공학회 기술상 상급 300만원 전액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해양도시가스 제공>

광주은행 새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오픈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2일부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을 오픈하고, 성공적인 운영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세스가 간편하고 디지털화 돼 편하고 빠른 대출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 기존 부동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를 각 사이트에서 일일이 접속하지 않고도 은행 내부 전산을 통해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관리해 담보 평가에 자동으로 반영한다.

▲ 담보평가 요소인 규제지역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지역구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분하며, 입력 정보와 주택규제비율 등을 반영해 '대출가능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최적의 추천 상품을 자동 적용해 최근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출가능금액', '상환방법 제한' 등 대출조건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 정보를 통해 정확한 판단 및 설계를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담보대출 상담신청을 모바일웹(Web)뱅킹(포털에서 광주은행 검색 접속)에서도 할 수 있다. 위치정보기반으로 가까운 영업점을 검색해 상담신청 접수하고, 증명서류를 스크래핑(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 제출)하거나 고객이 직접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백의성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모든 은행업무와 상품·서비스를 디지털화해 고객에게 쉽고 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 고객의 공간에서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6차례 합동일자리 박람회 430명 취업 성공

중기부 광주·전남청

올해 6차례 열린 합동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지역에서 430여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고용노동청, 한국전력 등과 869개사가 참여하는 합동일자리 박람회 6차례 공동개최한 결과 430여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또 클린한 번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2회·677개사 참여)에서는 316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취업·산학맞춤반 운영을 통해 특성화고생을 중소기업으로 취업시키는 중기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도 광주·전남·제주 등 호남권 20개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을 53.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50.9%에 비해 높은 성과다. 광주·전남청은 오는 2018년도 우수강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에너지밸리기업, 특성화고 채용 등 수요자중심 일자리 박람회를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83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자		
2	25	28	30	33	45	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144,449,125				6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66,903,173				47	
3	5개 숫자 일치	1,562,848				2,012	
4	4개 숫자 일치	50,000				97,334	
5	3개 숫자 일치	5,000				1,656,959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사전예약 할인행사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하 1층 '더메나주리' 매장에서 자르지 않은 전체 형태의 케이크인 '홀케이크' 사전예약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외식불가 인상이 겹치면서 연말 부담을 덜기 위해 집에서 파티를 즐기려는 '홀파티족'이 늘어나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는 게 광주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더메나주리는 올해 '신비하고 재미있는 서커스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페이로맨', '서커스 쇼콜라' 등 4가지 홀케이크를 새롭게 출시, 사전예약을 할 경우 제품당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예약한 케이크는 다음날인 21일부터 25일 중 원하는 날짜에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 트리와 산타 모양의 귀여운 케이크, 마카롱 세트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디저트도 함께 판매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민 10명중 7명 "내년 경제 부정적"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올 살림살이 나빠졌다" 62%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10명 중 7명은 내년 경제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62%였고 나아졌다는 답변은 10.8%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나빠졌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나빠졌다'가 36.0%로 '조금 나빠졌다'(26.0%)보다 10%포인트 많았다.

한경연이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 살림살이에 대한 질문에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 순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민생경제 체감도가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물가 상승(2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소득정체(21.0%), 부동산 가격 상승

(13.2%), 취업난(1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 70.9%가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는 경제성장을 저하(22.1%)와 가계부채 증가(22.1%), 민간소비 부진(12.5%), 재정건전성 악화(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취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